

Korean Libraries Today and Tomorrow : Public Library

■ 1977年 圖書館界의 回顧

公共圖書館界

金 榮 朝
서울市立南山圖書館

머 리 말

해가 바뀌게 되면 우리들은 依例히 家庭이나 職場에서 한 해 동안의 지난 일을 回顧하고 反省하면서 보다 알찬 세대의 設計를 세우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그 設計圖대로 일을 推進하기 위해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던 지나간 일 중에는 잘된 일도 있는 反面 누우치는 일 또한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過去를 回顧하고 反省하여 來日의 健全한 設計를 세워 보다 넓은 自身의 發展과 社會發展에 拍車를 加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人類社會가 存續하는 한 永遠할 것이다.

77년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公共圖書館界는 積極인 圖書館活動을 展開함으로써 地域社會住民과 좀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 努力하였고 안으로는 專門職 司書의 育成과 資質面에서의 向上을 위한 職務教育도 實施하였다.

또한 公共圖書館部會를 通하여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阻害하는 要素를 關係當局에 建議도 해보았지만 別로 進展이 없는 안타까운 또 한 해가 되풀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宿命的 課業인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위해서 公共圖書館界가 걸어가야 할 方向을 摸索하여 보다 나은 未來를 約束하는 뜻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I. 新設된 圖書館

國內에서 最大의 施設을 자랑하는 正讀圖書館이 新年을 맞이하는 새로운 希望속에 지난 年頭 1월 4일 開館되었다.

서울 鍾路區 花洞에 位置한 由緒깊은 前 京畿高等學校 校舍를 改築하여 세워진 正讀圖書館은 垜地 11,038 坪에 本館을 비롯한 4個建物の 建坪 4,308坪과 市民의 公園으로 다시 말하면 圖書館公園으로 5,300坪이 마련 되어 함께 開園되었다. 이 圖書館의 閱覽席數는 3,56

6席의 大規模이며 건물과 各室의 現況은 이린이 閱覽室을 포함한 一般閱覽室이 13個室로 1,482坪, 參考閱覽室과 行政資料室, 研究室, 音樂室 등을 포함한 特別室이 10個室 其他 13個室을 합쳐 모두 36個室의 1,482 坪으로 前面에 本館이 있고 中間에 第1閱覽館 그 뒤 第2閱覽館으로 마치 석삼 字를 길게 느러 놓은 것과 같으며 기타 群小 別棟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 앞으로 正讀圖書館은 名實共히 우리나라 最大의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과 特色을 잘 살려 나갈 것을 우리함께 祈願하는 바이다.

그리고 特히 반갑고 期待되는 것은 中央日報·東洋放送에서 年次의인 地域社會 開發을 위해 全國 主要都市에 公共圖書館을 建立, 그 地域社會에 寄贈할 것을 約束하며 그 繼續事業으로 다음과 같은 몇개의 圖書館이 또 誕生하기에 이르렀다.

① 江陵中央圖書館

起工: 1977. 9. 29.

住所: 江陵市 校洞 904의14

地下 1層 地上 2層 總閱覽席 300席으로 7천2백여 만원의 豫算을 드러 起工.

② 忠州中央圖書館

起工: 1977. 10. 13.

8천여만원의 豫算으로 800坪의 垜地에 地下 1層 地上 2層의 슬라브 建物로 建坪 276.8坪의 圖書館을 起工.

③ 水原中央圖書館

水原中央圖書館은 3천1백 餘萬을 投入 垜地 500坪 建坪 203坪의 2層 철근 콘크리트 建物로 꾸며 졌으며 一般閱覽室, 兒童閱覽室, 定期刊行物室等 모두 240席.

그러나 이와같이 新設된 圖書館이 있는 반면 遺憾스럽게도 慶尙北道의 奉化郡立公共圖書館이 避치 못할 事情으로 廢館되었음은 哀惜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하나의 圖書館이 사라져 갔다고 하는 事實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興奮과 굳은 決意가 앞선다.

II. 週刊行事

① 圖書館週間

第13回 圖書館週間 行事가 今年에도 4月 12日 부터 18日까지 1週間に 걸쳐 全國적으로 實施되었다.

이 圖書館週間은 圖書館이 社會發展에 寄與하는 것이 무엇이며 圖書館의 本來의 目的과 事業活動이 무엇인가를 一般國民에게 周知시키며 나아가서는 圖書館事業을 社會運動으로 誘導하는 契機를 마련하는데에 目的이 있는 것이다.

全國의 公共圖書館은 無料開館 讀後感想文 募集 展示會 新聞 라디오 T.V等 미스콤을 통한 座談會와 一部 圖書館에서는 貴重本 및 稀貴本 展示會 利用者 座談會 등을 가진바 있다.

② 讀書週間

第23回 讀書週間이 9月 24일부터 30일까지 1週日間 公共圖書館을 中心으로 全國적인 行事로 實施하였다.

이 讀書週間은 讀書의 必要性을 認識시키고 生活化 하게 하고 未讀書層을 開發하여 바람직한 社會發展을 꾀함으로써 民族文化 向上과 祖國近代化을 促進시키는데 그 目的을 둔 讀書週間的 行事는 全國 公共圖書館의 無料開館 多讀者 表彰 讀後感想文 募集 圖書展示會 良書紹介 學術討論會等 그 地域社會에 맞는 讀書指導 및 圖書館 利用指導을 積極 實施했으며 특히 이번 讀書週間에는 圖書館協會와 大韓出版文化協會의 共同 主管으로 「圖書文化의 現在와 未來」에 對한 세미나가 開催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서울大學校의 圖書館長 李萬甲教授의 「圖書館과 國家發展」이라는 主題發表와 함께 弘益大學校 李恒寧總長의 「出版文化의 振興策」 서울大學校 韓養泳教授의 「우리나라 圖書流通 構造의 實態와 그 方向」이라는 主題發表가 있었다.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여름放學 동안 全國 公共圖書館에서 實施한 여름讀書教室에서 讀書教室運營에 功勞가 큰 指導教師와 讀後感作成이 優秀한 學生들에게 文敎部長官賞을 비롯하여 各市道 教育監賞(27名) 國立中央圖書館長賞(31名) 當該圖書館長賞(55名) 등을 授與하였다.

III. 對外奉仕活動

公共圖書館이 地域社會 住民들을 위해 바람직한 積極적인 圖書館活動을 展開하는 方法으로 移動文庫와 臨海文庫 여름 겨울 讀書教室運營等 조금씩 方法을 달리한 積極적인 奉仕로서 圖書館 活動을 展開해 왔다.

1. 夏期臨海文庫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7月 25일부터 8月 8일까지 15일간 江陵 鏡浦臺海水浴場과 忠南 大川海水浴場에 設

置하여 많은 避暑客에게 圖書를 閱覽토록 했으며 서울 市立南山圖書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7月 25일부터 8月 10일까지 17日間 江原道 洛山海水浴場에서, 또 正讀圖書館은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18일간 三星文化財團의 場所 提供으로 戀浦海水浴場에서 여름臨海文庫를 열어 큰 成果를 거두었다.

2. 讀書教室 開設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全國 各市道 主要 公共圖書館과 共同으로 여름과 겨울 放學期間을 利用하여 初中等學生을 對象으로 健全한 讀書氣風을 振作시키고 讀書의 習慣化를 形成시키기 위하여 讀書教室을 設置 運營하여 成果를 거두어 왔으며 今年 1월 8일부터 18일까지(10일간)의 겨울과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10일간)의 여름 各市道別로 讀書教室을 開設하여 讀書方法과 良書選擇 要領, 感想文 作成法 圖書館利用法等에 對한 指導와 其他 테크레이션을 指導했다.

IV. 公共圖書館 세미나

發展途上에 있는 우리나라 圖書館界에서 특히 公共圖書館 分野가 가장 沈滯되어 있다고 하는 現實情에서 公共圖書館이 앞서서 發展해 나가야 한다는 持論下에 公共圖書館部會에서는 1964년부터 每年 數회에 걸쳐 「公共圖書館發展을 爲한 세미나」를 開催해 오고 있다.

今年에도 역시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全羅南道 木浦에 있는 木浦市立圖書館에서 세미나를 開催하였다. 文敎部長官의 致辭와 木浦市長의 歡迎辭가 있는 가운데 國立中央圖書館長, 教育長, 貴賓 그리고 全國에서 모인 公共圖書館長과 關係職員이 參加한 가운데 特別講演이 있었으며 主題發表가 있었다. 그 內容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1. 公共圖書館의 發展過程과 社會教育的 任務.

—社會教育機關으로서의 公共圖書館의 觀念—
高麗大學校師範大學 教授 鄭宇鉉

- 1) 「준도우」와 公共圖書館
- 2) 圖書館의 發達과 公共圖書館
- 3) 社會教育的 課題와 公共圖書館의 位置
- 4) 맺는말

2. 讀書人口의 開發과 公共圖書館의 役割

木浦教育大學 圖書館長 韓永萬

- 1)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讀書의 意義
- 2) 讀書人口 低調의 要因
 - 가. 讀書人口의 實態
 - 나. 讀書人口의 低調의 要因

3) 讀書人口 開發을 위한 公共圖書館의 活動方向
 가. 繼續教育機關으로서의 公共圖書館의 重要性
 나. 公共圖書館活動의 方向

4) 讀書人口 開發을 위한 公共圖書館活動의 具體
 的인 方案

가. 積極的이고 不斷한 啓導活動을 展開해야 한
 다.

- (ㄱ) 메스컴 利用
- (ㄴ) 印刷物 利用
- (ㄷ) 揭示版 포스타 利用
- (ㄹ) 陳列窓 利用
- (ㅁ) 遊興場 利用
- (ㅂ) 班常會의 利用 등

나. 讀書人口 開發을 위한 汎國民的 讀書運動
 機構를 組織하는데 核心的이고 前衛的 役割을 해야 한
 다.

다. 讀書할 수 있는 社會的 與件을 造成해야 한
 다.

라. 公共圖書館 館內運營의 革新을 期해야 한다.

5) 結論

V. 奉仕資料 發刊

1. 國立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各大學圖書館, 公共圖書館,
 學術研究, 國際交換用으로 「學術論著綜合索引」을 發刊
 하였고 「外國圖書綜合目錄」 「出版物總目錄」 「文獻情
 報」 등을 發刊하여 圖書館 資料를 利用하는데 많은 도
 움을 주고 있다.

2. 大邱市立圖書館

大邱市立圖書館에서는 1971년부터 1975년까지 中央
 紙 5大新聞과 地方紙中 每日新聞 嶺南日報를 포함한 7
 個 新聞의 2萬餘件의 社說을 分類한 索引目錄을 作成
 各 圖書館에 配布하였다. 이러한 新聞社說索引은 國內
 에선 처음있는 일이며 特히나 地方公共圖書館에서의
 劃期的 書誌事業이란 點에서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
 다. 또 한가지는 지난 해에 이어 今年 11月에는 日本
 圖書와 漢古籍, 西洋圖書의 藏書目錄 第二輯을 發刊
 配布하였다. 우리는 서울이나 地方을 莫論하고 그 地
 域社會나 團體로의 各圖書館 特色을 살려 圖書館의 弘
 報活動과 資料紹介等 書誌事業에 積極 힘을 기울였으
 면하는 마음 간절하다.

VI. 特記事項

1. 示範圖書館 指定 및 姊妹結緣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木浦市立圖書館을 示範 圖書
 館으로 指定하는 懸板式 및 寄贈圖書 證書의 傳達과

朴亨昊 木浦市立圖書館長에게 주어지는 表彰牌 授與式
 이 지난 12월 6일 盛大히 行해되었다. 이 자리에는 國
 立中央圖書館의 館長이며 公共圖書館部會 會長이신 孫
 禮植 館長과 閔永基 指導協力課長 木浦市長 各 機關長
 그리고 많은 市民들이 참석하였다.

이어서 木浦市立圖書館과 서울의 南山, 東大門圖書
 館이 各各 資料교환과 技術協助를 다짐하는 姊妹 結緣
 式이 이루어 졌다. 이로써 서울의 大 公共圖書館과 南
 端의 港口都市 木浦의 公共圖書館이 相互 圖書館運營
 改善을 위해 密着되는 紐帶를 더욱 鞏固히 하였다.

2. 語學室 開設

年初에 開館을 본 서울의 正讀圖書館이 우리나라 圖
 書館界에서는 처음으로 試圖되는 特殊活動으로 語學室
 의 開設이 지난 12월 13일에 이루어 졌다.

語學室 運營을 위해 熟練된 專門技士를 확보했으며
 64席을 갖춘 各 席座에는 完全防音과 HEAD PHONE
 이 마련되어 있어 語學習得을 위한 利用者에게 개방되
 고 있다. 時間을 每日 午前 午後 各 1回씩이며 利用할
 수 있는 教材는 英語에 ENGLISH 900과 日語에 現代
 日本語를 提供하고 있다.

3. 圖書館人 體育大會

全國圖書館大會와 圖書館人體育大會가 올해에는 京
 畿道 利川郡 戶法面 梅谷里에 位置한 UNESCO 靑少
 年 修練場에서 開催되었다. 郊外의 아늑한 곳에서 開
 院 直前に 있는 새 建物에 全國의 圖書館人이 모여 하
 룯밤을 지새며 大會를 가겠다는 것도 새로운 일이다.
 이어서 이튿날 開催된 體育大會의 排球種目에서 서울
 의 公共圖書館 合同팀이 優勝함으로써 三年 連覇의 實
 力을 다시 한번 誇示하였다.

Ⅶ. 앞으로의 展望

한 나라의 文化發展과 國力의 富強은 市民 大衆의
 學校인 公共圖書館의 普及과 成長에 正比例한다고 한
 다.

왜 公共圖書館이 發展을 못하고 恒常 踏步 狀態에서
 주춤하고 있는가 그 要因을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동안 公共圖書館 發展의 阻害要因이 늘 累積되
 어 왔고 二十個 星霜을 두고 渴求해 오던 이들 宿願이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은 채 또 한 해를 보내는 것 같
 아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다.

해마다 學論되어 오던 圖書館法의 改正, 職級調整問
 題, 所屬廳一元化, 豫算問題, 公共圖書館增設問題 등
 이외에도 많은 問題點이 있으나 이 問題點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前인 지금 公共圖書館의 展望을 論한
 다는 것 부터가 별로 意味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
 다.

公共圖書館의 增設問題는 公共圖書館 設置 五個年計劃에서 蹉跎를 가져와 다시 研究 檢討되고 있다고 한다.

豫算問題에 對한 問題點은 圖書館 豫算中 人件費가 全體豫算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니 資料購入費를 생각할 때 이것이 큰 問題點이 되는것이다. 따라서 現在의 豫算 配定으로는 아무리 뜻이 있고 意慾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事業도 할 수 없는 形便이다.

그리고 3級以上の 職級問題도 時急한 일이다. 從前에는 3級甲類까지 專門職으로 輔해 있었는데 지금은 書記官으로 統合되고 專門職으로서는 3級乙類인 司書官이 막다른 길이 되고 말았다.

모든 機能을 專門視하는 오늘날에 司書職을 國家에서 專門職으로 認定하여 資格證까지 賦與하면서 다른 職種은 2級까지도 專門職으로 看做되는데 推獨 司書職만이 3級乙類를 最上級 職級으로 되어 있다는 矛盾된 現 制度下에서 專門職인 司書官(三乙)이 書記官(三甲)으로의 昇進은 참으로 어려운 實情이다. 이러한 問題點은 人事關係를 處理하는 權限이 一般 行政職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司書職에게는 不利한 條件인데 專門的인 일자리라고 司書職에서 書記官으로 昇進 發令하자는가 생각해 보자.

이러한 制度는 아직도 圖書館을 沒認識한데서 波及된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그늘에서 남모르게 苦生하는

司書職을 가장 擁護해야 할 現時點인데 이와 같은 制度上的 矛盾은 하루 속히 是正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司書職 從事者에 對한 士氣問題 뿐만 아니라 全體圖書館 活動에 미치는 沮害要因이라는 것을 嚴肅하게 그리고 分明하게 밝혀 본다.

맺는말

以上으로서 公共圖書館이 걸어온 1年間의 발자취를 잠시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展望도 簡略하게나마 생각해 보았다. 結論의으로 公共圖書館이 그 어려운 여러가지 與件아래에서나마 보다 나은 來月을 向하여 발돋움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逆境을 좀더 참고 견디어서 훌륭한 奉仕計劃을 세우고 奉仕 姿勢를 確立하여 圖書館의 機能을 能率의으로 運營해 나갈 수 있는 우리 司書職들의 마음 가짐이 첫째로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公共圖書館의 發展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는 使命感을 가지고 다같이 奮發해야 하겠다.

끝으로 全國 各 圖書館에서는 이번 機會에 꼭 알려야 할 일이 많은 줄을 알면서도 資料와 情報의 未蒐集으로 掲載치 못했음을 謝過드리며 該當 圖書館에서는 널리 諒察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圖書館實務便覽」發刊

今般 本會는 그간 切版되어 여러분들이 購得할 수 없었던 「圖書館實務便覽」을 다시 影印하여 發刊하였읍니다.

「圖書館實務便覽」은 組織管理, 分類, 目錄, 資料選擇, 施設 등 圖書館에 대한 基礎理論을 總網羅한 도서판 핸드북으로서 一線 司書는 勿論, 圖書館學을 쉽게 理解하려는데 基本이 되는 圖書館運營書입니다.

A5版/864面 定價 6,500원(會員 5,200원)

연락처 : 韓國圖書館協會 事務局 (22) 4864 · 5613